

# 풍년화

L A N D S C A P I N G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조록나무과
- ▶ 학명 : *Hamamelis japonica*
- ▶ 영명 : Japanese Witch Hazel
- ▶ 일명 : 만사く



▲ 풍년화



『봄의 전령』 풍년화는 중부지방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절기상 우수(雨水)를 전후해서 꽃이 피나 빠르면 2월 17일께 늦어도 3월 초순이면 잎이 돋아나기도 전에 황금색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다.

2007년 초겨울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개나리, 산철쭉, 풍년화가 세월을 잘못알고 꽃을 피우고 있어 내년 초에 피어야 할 꽃눈의 수가 줄어 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풍년화는 봄이 채 오기도 전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담스런 황금색의 꽃망울을 터뜨려 봄소식을 전해주는 풍년화를 한 두 그루 정원에 심어놓고 감상하는 맛이란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리.

## 1. 생태적 특성

일본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1930년 경 도입되어 국립산림



▲ 풍년화

과학원 부속 홍릉수목원내에 식재되어 있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수고 6m, 직경 30cm에 이르고 서울 지방에서 봄의 화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한성은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생장 가능하며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양에서 생장이 양호하다. 내음성과 개건성은 약하나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은 강하다.

## 2. 형태적 특성

밑에서부터 많은 가지가 올라와 큰 포기를 이루며 수피는 회갈색으로 매끄럽고 어린가지는 암갈색 또는 황갈색이다.

어긋나는 잎은 능상(菱狀) 원형이며 두껍고 파상의 톱니가 있으며 길이 12cm, 넓이 5~7cm정도이며 꽃이 지고 난 3~4월께 들어셔야 새잎이 파릇파릇 돌아난다. 잎의 뒷면에는 성상모가 있고 잎자루는 짧다.

꽃은 자웅1가화로 2~3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꽃잎은 4개로 선형이며 길이 1.5~2.0cm이다. 삭과는 길이 8~10mm이고 곁에 짧은 면모가 있으며 10월에 운채가 있는 흑색 종자가 튀어 나온다.

유사종으로는 은은한 향기가 특징인 중국원산의 모리스 풍년화(*H. mollis*), 루비같이 붉은 진분홍색꽃을 피우는 버나리스풍년화(*H. vernalis*), 일본산의 둥근잎풍년화는 (*H. japonica* var. *obtusata*)봄의 전령이라기 보다는 겨울을

알리는 겨울 꽃으로 유명하다. 서울지방에서는 찬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얼 무렵인 11월 중순께 계절을 잇는 듯 노란색 꽃을 피운다. 이 꽃이 피면 서울지방에 겨울이 왔음을 알수있게 된다. 이 때 짙 이면 정원의 장미와 모란은 짙으로 전체를 싸주어 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목련 감나무등의 월동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먼 산에 아지랑이가 일고 계곡의 얼음이 풀릴때면 풍년화는 황금색의 노란 꽃봉오리를 터뜨려 봄을 알린다. 화려하고 소담스러운 꽃이 가지 위에 담뱃 피면 풍년이 온다하여 풍년화라 한단다. 또한 이른 봄 일찍 꽃을 피우면 풍년이 온다고도 한다.

풍년화는 대기오염에도 강하여 도시의 공원이나 가정의 정원수로 심을만 한 훌륭한 관상수이나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내에 품종별로 몇그루씩 시험재 배하고 있긴 하나 인기 없는 관상수로 잘 팔리지 않고 있다 한다. 그러나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매년 이른 봄에 풍년화 홍보가 많은 관계로 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종이다.

## 4. 번식법

번식은 가을에 익은 종자를 채취, 종자를 골라 묻어두었다가 이듬해 파종하면 된다. 그러나 어렵기는 하나 삼목으로 더 좋은 묘목을 얻을수 있다.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3~4월에 경지삼목하거나 7월에 녹지삼목으로 증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접목으로도 번식하는데 특별한 품종이거나 아름다운 색의 꽃이 피는 품종 혹은 빠른 기간 내에 꽃을 피우고자 할 때 좋다.

## 5. 그 밖의 용도

1~2월에 꽃눈이 있는 가지를 꺾어 자그만 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 꽃꽂이 하면 훨씬 이른 봄을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